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한 민방위 장비 사용 활성화 방안

A Plan to Activate the Use of Civil Defense Equipment Using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Joint Utilization System

박 남 희* · 여 옥 현** · 여 화 진***

Park, Nam-Hee · Yeo, Wook-Hyeon · Yeo, Hwa-Ji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 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Keywords : 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RSS

1. 서론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 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민방위 장비는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DRSS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등 필수 6종과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6종을 구비하여 사용중이나 실질적인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평시 및 재난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민방위 장비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현황

DRSS는 453개(지자체 245, 중앙부처 14, 유관기관 177, 민간 19) 기관의 22개 내·외부 시스템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자원정보를 연계·공유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원관리(검색 및 등록), 자원응원(타 기관 자원활용 요청), 기관 별 자원 현행화 관리 및 조회 등이 있다. 다만 자원응원요청시 재난 발생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검색을 지원해야함에도(행정안전부, 2018,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북),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른 예로, DRSS 내 ‘자가학습 응원관리 메뉴’를 통해 강남구에서 발생한 가상의 재난상황에서 자원응원요청을 위하여 소요 자원을 검색한 결과 재난발생 위치는 서울의 강남구임에도 광주, 대전, 여수 등의 지역이 뒤섞여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응원’ 기능은 유사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DRSS의 핵심기능인 만큼 인근 지역의 유휴 자원의 검색이

* 정희원 · (주)유엔이 상임고문 parknh@unes.co.kr

** 정희원 · (주)유엔이 대표이사 yeowh@unes.co.kr

*** (주)유엔이 차장 hjyeo@unes.co.kr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2. DRSS 내 민방위 장비 현황

DRSS에는 기존 민방위장비 필수 6종 중 응급구호세트 1종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DRSS를 활용한 민방위 장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방위 장비 분류 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DRSS에는 민방위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민간단체의 경우 인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일부 시설응급복구나 자원봉사로 중분류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중분류 없이 소분류에 단체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민방위는 분대 별로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등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역과 같이 여러 재난 상황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민방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DRSS 내 민방위 운영장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분류인 장비, 자재, 인력에 더해 민방위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중분류는 민방위 분대 혹은 임무 별로 나누고, 소분류에 개별 장비를 등록함으로써 민방위 장비를 독립된 영역의 자원으로 관리하는 형태다. 민방위 장비를 기존의 재난관리자원과 연계하여 통합관리·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DRSS에 민방위 장비 등록하여 관리한다면, 분대 별 임무를 고려하여 여러 재난유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 내에는 자원등록시 중분류 혹은 재난유형을 분류하여 등록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장비, 자재의 경우 자원 등록시 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분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을 뿐 자원 유형에 대한 정보 기입란은 없으며, 인력 등록의 경우 중분류와 다른 기준의 전문분야와 활동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어있다. 민방위를 인력에 포함하되, 자원 명에 분대별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분대별로 확보되어 있는 장비 전체가 분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대용 조명등, 응급처치세트 등 세부 물품별 연계·활용이 어렵다.

3. 결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재난 발생시 각 기관이 수습복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약 300만이 넘는 민방위대 인력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이들이 사용가능한 물적자원을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케한 재난연 당국에 감사드립니다.